

buddhanews.com

내 한마음 주장자로서 일체 만법을 손색없이 굴러야

25면에서 계속

결로 생각을 하니 얼마나 지혜롭게 못했을까? 나, 나, 나. 나로부터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낫기 때문에 상대가 생겼고 세상이 벌어진 거지, 내가 이 세상에 나지 않았으면 어떻게 상대가 있으며 어떻게 세상이 벌어졌겠습니까? 그러니 나로부터죠. 내 악업 선업의 증생들이 다 내 몸속에서 작용을 하고 있는데, 내 몸속 작용을 하는 그 증생들부터 제도가 돼야 하겠기에 나는 반드시 내 마음으로 나를 다스려야 된다고 하십니다.

공(空)해서 잘나잘나 화하는 고정벽이 없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정되지 않게 용도에 따라서 다가오는 것을 그대로 그대로 거기가 맡기면서 '너밖에 할 수 없다.'고 했을 때 '너만이 알아서 증명해 줄 수 있다.'는 그 사실! 자기 용도에 따라 달린 것은 자기가 더 잘 알겠지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아주 알맞고 지혜롭게 거기가 잘 맡겨 놓고 '너만이 할 수 있다. 너만이 낫게 할 수 있다. 너만이 이끌어 갈 수 있다. 내가 모르니까 내가 알아서 잘 처리해 줄 수밖에 없다...' 내일 먹을 거리가 없다 하더라도, 아니 내일뿐 아니라 이따가 먹을 게 없다 하더라도 '너만이 먹게 할 수 있다.'는 그 믿음, 신념이 굳을 때는 반드시 먹을 게 오는 것입니다. 여복하면 이 도리를 아는 사람은 돌에 세워 놔도 산다고 하겠습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죽상이 잘생겼는지, 수상이 잘생겼는지, 관상이 잘생겼는지 해도 심상이 잘생긴 것이 으뜸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모두가 다 우리의 마음먹기에 달린 거죠. 마음먹기에 달렸다는 그 간단한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텔레비전에도 나오고 그러지만 무슨 호흡이나 무슨 운동이나 모두들 하는데, 이 도리를 아는 분에 한해서만 반드시, 이 몸속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이 개별적인 기능을 가지고 자기의 모자라는 부분에 다 작용을 해 주기 때문에 마음공부가 필요한 거죠. 자기가 모자란다는 거는 자기가 더 잘 압니다. 허할 때는 뭐가 먹고 싶다 이런 것도 압니다. 또 어디 옆구리가 좀 결리면 거기가 그렇다는 걸 압니다. 기가 빠졌다는 것도 압니다. 그러니까 빨리빨리 대처를 해서 놓으면 그냥 채워 줍니다. 그런데 뭐가 부족합니까? 뭐가 부족해서 이러니저러니 해 가지고 온통 거기에다가 다 신경을 쓰게끔 되고, 살림살이는 헌신짝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됩니까?

중심 하나면... (손가락을 하나 세워 보이시고) 모든, 우주 삼라만상이 중심 하나로 돌아옵니다. 그 중심의 기능이 바로 여러분 마음의 기능과 그 중심에 직결이 돼 있습니다. 지구가 태양을 끼고 돌아가듯, 우리 마음이 바로 지구에 붙어살고 또 지구가 그렇게 붙어살고 그렇게 해서 돌아가듯... 내가 그전에도 얘기했죠. 사람들이 지구가 사공을 조율해서 어디로 돌아다니는지 모르는 것처럼, 이 사람 속에 있는 증생들도 사람이 어디로

돌아다니는지 모르고 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의 집집이가 이 속의 자생증생들을 잘 제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계가 없는 걸 부처님이라고 이름을 지어 놓은 겁니다. 부처님이라는 것은 너 나가 돌이 아니고, 산천초목, 미생물에 이르기까지 어떤 것이든, 못났든 잘났든 바로 자기 영역에서는 높다는 것을 상징한 겁니다. 어느 집안에서든지 그 안에서는 모두가 다 나름대로 높다는 겁니다. 집안뿐만 아니라 미생물에 이르기까지 일체 만물만생이다, 지렁이는 지렁이 소굴에서 높고, 거북이는 거북이 소굴에서 높는데 단, 차이가 없이 평등하게 높은 것을 부처님이라고 이름을 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본래 이것저것 탓할 게 없이 여여하게 그대로 돌아가는 것을 여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이름 내놓은 것에 끄달린다면 한 걸음도 딛고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부처님께서 비유해서 말씀해 놓

때에 그냥 먹었을 뿐이지, 거를 먹었다고 해서 죄가 붙을 자리가 없구나.' 이거는 대승의 도리입니다! 대승이라는 도리도 없는 도리입니다.

그래서 그때에 부처님께서 그렇게 비유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모든 사람들이 '깨닫는 것은 불을 자리가 없구나. 모두가, 너 나가 다 돌이 아니거늘 불을 데가 어딴는가?' 하고 깨달았다는 거죠. 아들이 아버지를 살해하고 그 왕위에 올라섰다는 뜻은, 바로 우리가 지금 이 물 한 방울에 다른 물 한 방울이 들어간다면 한 방울의 물이 저기에는 두 방울의 물이 없습니다. 사람을 그냥 죽여서 죽인 게 아니고, 그건 마음의 도리를 비유한 겁니다. 그러니까 부처님도 먹고 들어가야 된다고 하죠.

부처님도 먹고 들어가야지, 부처님이 삼라만사 다 돌이 아니게 한자리를 하고 계시고 모두 평등하게 집어 잡았다면, 그 부처님의 골수를 집어 먹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집어 먹기 위해서는 그러

이 세상천지를 다 떡 하나로 만들어서 그것을 드리면, 아주 하나도 부족한 게 없지 않느냐?' 이러더라 얘기도 하하하... 그러니까 그 제사 지내고 간 친구가 있다 하는 소리가 '야, 참! 너 발전했구나. 하하하... 나는 그렇게 해서 우리 조상을 흠족하게 해 드렸는데, 아휴, 너는 나보다도 더 흠족하게 할 수 있구나!' 이랬더라입니다. 그러니 그 마음의 지혜라는 게 얼마나 묘합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모두 조상들에게 그저 나물 몇 가지 과일 몇 가지, 요런 거 차려다 놓고 지내는 것만 생각을 하거든요. 마음을 넓게 해서 그냥 떡 하나를 놓고 제사를 지내 보세요. 초 하나, 향 하나, 물 한 그릇, 떡 한 그릇! 그것도 썰지도 말고 그냥 한 덩어리 찰떡으로 해다 놓고, 미리 해다 놔다가 좀 식히면 덩어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걸 접시에다 떡 놓고 지내면, 그건 뭐 이 세상을 다 주고도 바꿀 수가 없는 도리죠. 그렇게 한다면 정말이지 부모 조상들에게 더할 나위 없는 거죠. 조상

되죠. 밥을 짓고자 하면 쌀과 물과 불이 있어야 하는데, 불 하나가 빠져도 안 되고 물 하나가 빠져도 안 되고 쌀이 빠져도 안 됩니다.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내 몸과 마음이 동시에 발전을 할 수 있는 이 작업은 바로 생활 속에서 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십니다. 이런 법당에만 부처님 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고 자기가 있는 자리에는 다 있습니다. 부처님이 깨끗하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부처님께서 정신적인 아버지이지만, 육체들은 바로 그 부처님의 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을 깨달으면 바로 곧 부처다 이 소립니다. 여러분이 잘 파악해서서 이리도 쏘리고 저리도 쏘리지 마시고, 내 한마음 주장자로서 일체 만법을 손색없이 굴러시길 바랍니다.

질문하실 것 있으면 여여하게 맘 터 놓고 하세요. 배우려면 알면서도 딱 그릇에 그냥 얽드러지는 거죠. 뭐, 그러니까 그냥 질문하십시오. 아주 편안하게 말입니다. 적어 가지고 오셨다면 한 구절 한 구절 하세요.

여러분이 하나하나 마음을 지혜롭게 써서 거기 놓고 굴리는 대로 이 몸속의 자생증생들은 그 뜻을 받아서 움죽거리게 돼 있습니다 이 마음 지도자가 마음을 그렇게 자꾸자꾸 제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신 게 있다고 봅니다. 어느 왕이 나라를 통치하고 있었는데, 그 아들이 자기 아버지인 왕을 죽이고 왕위에 올라섰습니다. 왕위에 올라서서 일을 하다가 큰 종이가 있는데, 왕이 보니까 몸뚱이가 아주 마르고 이제는 다 죽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두 병문안을 오니까 그때서야 자기가 업보가 될 것을 모르고, 죄업이 될 것을 모르고, 왕을 살해하고 왕위에 올라선 것을 참 한탄한다고 알아 드러누워 있으면서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병문안을 온 분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 "왕을 죽이고 왕위에 올라서는 것은 당연합니다. 누구든지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소승에서는...", 즉 얼른 쉽게 말해서, 얕은 지위의 증생들은 "... 업보가 있겠지만은 당신은 업보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업보가 없느냐?" 하고 물으니, "몸이나 도끼로 나무를 잘라 내고 그래 뉘던들, 그 몸이나 도끼에 업보가 붙는 것 보셨습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죽였다는 그 사실을 지금 부처님께서 비유해서 얘기하신 건데, 문안을 드리러 온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하면서, 말하자면 "궁벵이가 자기가 나올 때는 자기 어머니를 탁 떨어 버리고 나옵니다. 독사가 이 세상에 나와서 자랄 때는 자기 어머니를 먹고 자랍니다. 그래도 죄가 붙습니까?" 하고 물었답니다. 그 말끝에 훌쩍이 깨달아서 '아하! 그게 아니구나. 이 세상 모두들,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먹으

는 행위가 필요하디 이겁니다.

지금 우리가 마음 도리를 공부해 나가는 이 수행이 필요하디 이겁니다. 이 도리를 능히 알기 위해서는 자기 씨를 자기가 스스로 찾아야죠. 즉, 거기에 살던 그 씨는 바로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오기 이전'을 바깥에서 찾으려고 애쓰지 말라고 한 소립니다. 내가 그런 말을 했지요. "작년 씨를 울퉁에 심었더니 새 싹으로 화했더라. 새 싹으로 화해서 그 씨의 열매가 열려서 씨가 없었는데, 과거 씨를 어디 가서 찾은고? 현재에 내가 가지고 있는 씨, 내가 가지고 있는 맛,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바로 다스리면서 알면, 그대로 그 씨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다 먹고도 되니까..."라고. 이 세상의 마음의 떡이란 얼마나 크고...

이런 얘기도 있죠. 어떤 사람이 부모가 돌아가셨는데 차려 놓고 지낸 건 없고, 그런데 아마 물리가 무쌍하게 터진 모양이죠? 그래서 남이 잘 차려 놓은 호텔에 가서 절 세 번을 했더라. 허허... 자기 마음으로 자기 조상의 위패를 세워 놓고 말합니다. 또 부모님께 잘해 드려야 한다고 없는 것 없는 상점에 가서 그냥 거기가 제사를 지내 거죠. 마음의 제사를 지내고 보니까 없는 게 없더라. 그런데 그렇게 지냈다고 친구한테 얘기를 하니까, 그 친구 하는 말이 또 같지요. "야, 이놈! 가게에 가고 호텔에 가서 그것을 하느니,

들은 부처님 조상과 가정의 조상들과 돌이 아니니까요. 한자리를 하게 해서 한자리에다 놓고 그걸 지낸다면, 아까 그 젊은 사람이 "이 세상을 다 한쳐서 떡 하나를 만들어서 드리지 그랬느냐?"고 한 거나 똑같습니다.

그럼으로써 빛조상들의 묵은 빛도 갚을 수 있고 아래로는 자기가 뿌려 놓은 그 씨앗들에게도 햇빛을 줄 수가 있다 이 소리죠. 조상들이 결립이 없는 한편, 바로 부모의 마음이나 내 마음이 가설이 돼 있으니까요. 부모라는 생각과 자식이라는 생각이 이렇게... 그러니까 모든 게 한 염주의 염주알이죠. 그 마음이 결립이 없기 때문에 그 위의 조상들도 결립이 없을 거고, 아래로 자식들도 뿌리가 성장할 거고, 내 육신 속에 증생들도 다 그냥 보살로 화할 것이고, 얼마나 좋은 법입니까, 이게?

어떤 뎀 좀 안된 생각이 듭니다. 이 법체계 여러 분께서도 그렇게 해 나가시는 분은 해 나가시는 데, 아주 까맣게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주인공이라는 그 자체는 바로 내 영원의 생명, 그 근본 자체하고, 마음내는 거하고, 육체가 움죽거리리는 것이 같이 돌아가는 것을 말한다는 겁니다. 사람이 움죽거리질 못해도 무효고, 마음을 내지 못해도 목적이니 무효고, 또는 생명의 근본이 없어도 무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거 하나 빠져도 안

질문자(남): 범행체회 형제분들의 의문을 대신 해서 질문 올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첫번째 질문입니다. 부처님께서 영혼의 존재를 묻는 질문에 대해 대답하지 않으셨으므로 영혼의 존재를 부정하고 오직 마음만을 강조하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평소에도 윤화니 업보니 하는 말을 듣다 보면 은연중에 영혼의 존재를 믿고 말하는 겁니다. 영혼에 대해서 가르침 주시겠습니까?

큰스님: 영혼이라고 하는 것도 이름일 뿐이고, 마음이라는 것도 이름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 양면 가운데서, 바로 마음의 작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영혼과 마음이 돌이 아닙니다. 돌이 작용을 하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 영혼이 없다면 바로 실체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영(靈)과 마음이 돌이 아니다. 돌이 아닌 깨달은 바로 마음 내기 이전 그 자체에 마음과 영혼이 돌이 아니게 결부해서 돌아가기 때문에, 스스로 마음이 나오는 겁니다. 마음을 낼 수 있게끔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음과 영혼을 각각 보지 마시라 이겁니다. 영혼이 있기 때문에 마음 또한 같이 돌아가고, 마음이 있기 때문에 마음을 낼 수 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내기 이전은 그대로 근본이 돼 있죠. 그대로 근본이 돼 있기 때문에 뭐 영혼이다 마음이다 이럴 필요가 없죠. 그래서 그 근본과 마음내는 거와 육체가 움죽거리리는 그 자체가 돌아가는 그 자체가 바로 주인공이죠.

(다음 호에 계속)

*위 법문은 1993년 3월 7일 범행체회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불자의 긍지 · 신행의 기쁨

현대불교신문사 전국지사 안내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에 앞장서 온 현대불교신문.

보다 편리한 구독신청 · 광고계약 · 기사제보... 연락주십시오! 달려가겠습니다.

지사명	지사장명	연락처
부산지사		박지원(객원기자) 051)632-0064 / 010-8544-0351
대구지사	손문철	053)768-8008 / 016-813-8008
충청지사	혜철스님	043)732-5560 / 010-9422-8453
광주전남지사	양행선	062)384-3009 / 016-629-1508
전북지사	조동제	063)910-8977 / 011-9642-7733
영주지국	박영애	054)634-3429 / 011-9373-3778
경남 남부지사	청운스님	055)746-9778 / 011-870-0021

146회 부산 3000배 용맹정진

업장소멸의 관건은 지극하고 간절한 성스러움과 최고의 공경심으로 절하며, 전신의 노폐물, 독소, 나쁜 기운의 땀을 흘리면 괴로운 맘 소멸되고...

소원성취는 해맑게 미소 짓는 기쁜 얼굴로 '부처님 크신 은혜 고맙습니다' 대공정의 감사염송을 온 몸과 맘에 가득 채우며 절하면 100% 성취된다.

우리를 마음속에 부처님을 항상 모시는 날마다 행복한 날을 확인하는 **염불선도유미**를 동참자 전원에게 선물로 드립니다.

■ **날 짜** : 2010년 3월 13일(토) 저녁 9시 ~ 2010년 3월 14일(일) 아침 7시 (절하는 법 교육: 저녁 7시 ~ 9시, 3000배 시작하기 전)

■ **준비물** : 동참비 2만원 [필수준비물] 수린복: 100% 면 소재 흰색상의, 회색 반복 · 조끼, 방수포 (신규동참자는 선물), 기도포(방석을 덮을 끈수건), 맘 닦는 수건, 면양말 2켤레, 발로해(절수행 특수 덧신), 면장갑 2켤레, 위생비닐장갑 1, 목수건 (신규동참: 3만원)

[선택준비물] 우물, 손목, 발목이프신분(말관해원보호대), 허리이프거나, 이렛배, 영영이, 프리배, 차기우신분(호리호락 팬티), 어깨 이프신 분(스트레칭 필)

■ **장 소** : 부산 금정법당 ☞ 지하철 1호선 두심전철역 7번 출구 남산정비 화회전 50M 경유빌딩 4층

백만불자 108배 만일결사 수행중심교육도량 법왕정사

■ 서울숲 군자법당 (02)456-0035 ■ 부산 금정법당 (051)583-7886 ■ 대구 신천법당 (053)743-0063 ■ 광주 상우법당 (062)375-3500

한글도메인 : WWW.법왕정사.kr

한국불교전통조계종



증생구제와 자비실천을 함께하실 스님, 포교사, 법사님을 모십니다

종정대행 총무원장 **혜봉**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규칙 제4조 규정에 의하여 2001-82호 법인 설립

※ 준비서류 및 서류 발급

- ◆ 종단 입증신청서, 이력서,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장
- ◆ 입증하시면 사찰등록증, 주지 임명장, 승려증, 법사증, 포교사증 발급

※ 각 지역별 간부직 소임자를 우선 모십니다. 연락바랍니다.

한국불교전통조계종 총무원 연봉사

경북·포항시 북구 흥해읍 매산리 556-1번지
전화 054)262-5060 / 팩스 054)262-0067
혜봉스님 직통 011-545-5060